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잠깐 잘 것 같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울만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것처럼 모든 정보와 기술 그리고 경제력이 몰리더니 이제는 하나씩 다른 도시로 분산되고 있다. 마치 21세기 한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과학 산업의 기술력이 대전으로 온 것처럼.

대전 구도심은 역사성 풍부

마찬가지로 대전 문화의 메카로 불리던 대흥동도 예전같지 않다. 이곳을 찾던 문화 마니아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새로운 곳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문화시설들이 경제력을 갖춘 신도심으로 몰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음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변화를 읽어내서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제로 울금 세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립미술관은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인 구도심과 신도

학요 클럽

이 지 호
대전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의 역사 살리기 프로젝트

심의 갈등을 미술로 풀어 보고자 한다. 흔히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마치 근사한 문화시설 하나만 세워 주변 되는 것처럼, 그것을 해결 방안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구도심은 신도심이 갖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이야기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역사성이 있다. 현대화와 접목시킨 역사성이야말로 미래를 창출해 내는 보ogie에 우리는 이 역사성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중구 대흥동 상당 건너편에 1950년대 전후 복구와 함께 도시발전에 한몫을 했던 건축물이 농수산물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가 1992년 선화동으로 사무실이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비어 있었다. 최근 이 건물이 근대건축물로 지정돼 AT A아시아건축사무소가 기록화작업을 하고 있던 중 시립미술관과 뜻을 같이 해 '산책-건축과 미술'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밖에서 이뤄지는 전시라는 점과 르네상스 이후 떨어

져 있던 미술과 건축이 만난다는 점에서 설렘도 크지만, 잠자던 근대건축물에 현재의 시간을 투영하여 구도심의 환타지를 만들어 본다든 시도가 가슴을 벅차게 한다. 건물 내에서는 5명의 젊은 작가들의 재치 넘치는 실험의 열기가, 건물 밖 외부에선 어두운 밤 대형 영상 레이저가 풀어내는 최신의 영상 이미지쇼가 증구를 넘어 대전 전체를 환하게 밝힐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구도심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미술관이 다.

근대건축을 활용 전시회 마련

미국과 유럽의 외곽 도시에선 낡은 도심의 창고가 아틀리에로 활용되거나 전시공간으로 거듭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 멋진 왕자의 키스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공주님을 흔들여 깨우듯이, 구도심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산책-건축과 미술'전에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와 애정이 쏟아지기를 바란다.